

타카츠키시 인권 시책 추진 계획

〔 개 요 판 〕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 누구든지 본인답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

평성 27 (2015) 년 3 월

타카츠키시

계획의 대책에 관해서

오늘날 사회에서의 여성, 아동, 젊은이들, 고령자, 장애인, 동화문제, 성적 약자(소수자), 외국인시민에 관한 인권문제와 같이, 끊임없이 해결을 위해 맞부딪혀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행, 정보사회의 진전, 개인의식의 다양화와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인권의식 또한 다양화되어, 새로운 인권과제가 발생되고 있다. 2011년 3월에 개정된 “인권시책을 종합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타카츠키시행동계획”(인권시책촉진계획)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여 책정하는 것이다.

제 6 회 타카츠키시 인권의식조사에 따른 [평성 25(2013)년 10 월 실시]

▶각종 인권문제에 관한 문제의식

시민의 인권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질문항목에 대해 진행되는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인권과 차별에 관한 생각

- “차별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써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회답한 응답자는 60 대가 가장 높았으며, 20 대와 30 대는 40%이하를 웃돌고 있다
- “차별의 원인은, 차별당한 사람측면에도 있다” 라고 하는 자기책임을 묻는 의견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회답한 응답자는 60 대가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20 대가 그 다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아동인권에 관해서

- “따돌림은 따돌림을 받는 어린이에게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자기책임을 묻는 의견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회답한 응답자는 젊은 연령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처벌을 용인하는 회답자는 연령층과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었다.

▶동화문제에 관한 의견

- “동화교육, 인권교육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 확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견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회답에는 20 대 이후가 23.2%~30.1% 라고 답하였다.
- “이러한 문제들은 가만히 두고,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을 기다려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의견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한 사람들은 60 대이후가 23.6%~27.7%, 20 대가 22.4%를 나타내고 있다.

인권시책의 필요성

현 시점에도 존재하고 있는 인권문제와 새롭게 발생한 인권과제에 관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여, 상호간의 인권을 인정하고, 온갖 차별을 용서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향상을 계획하기 위해, 인권과제에 대한 이해를 돈독하게 하는 것의 유의하여, 인권교육, 계몽 또는 인권옹호, 보호와 같은 인권시책을 더욱더 촉진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

계획(시책)의 설정

이 계획은 “타카츠키시 종합 작전계획”의 분야와는 다른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에 관해서는 다른 인권에 관련하는 계획과 연계하여, 모든 관공서 적인 대응하고 있다.

계획의 기본이념

인권이식이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경제정서에 비추어, 더욱더,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을 시책의 기본으로 설정, 개인의 선택에 따른 여러 가지 가치관을 존중하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기 다른 개성과 능력이 빛을 바래어, 자기실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계획의 기본이념은 계속, “타카츠키시 인권시책기본방침”에 나타내어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
누구든지 본인답게, 활기차게 생활하는 사회의 실현”**

로 한다.

그리고, “타카츠키시 종합전략계획”의 기본목적의 하나로써 “누구든지 활기차게 생활하는 사회를 형성하다”에 기여하는 계획이라고 한다.

어울러, “타카츠키시 다문화 공생시책 촉진기본지침”의 기본이념인, “각기 다른 문화, 습관, 가치관을 인정하여, 국적이나 민족적,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함께 지역을 힘을 합쳐 보다 풍부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에 관해서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계획 기간

평성 27(2015)년도부터 평성 32(2020) 년도 까지 총 6 년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정세의 변화나 인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에 따라 수정 하는 것으로 한다.

인권시책의 구체적인 대응

기본이념의 실현을 향해, 인권시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과 목표로써,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지역사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 차별과 편견이 없고, 모든 시민이 상호간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 자기실현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 활기 있는

● 시민 누구든 사회의 일원으로써 동일하게 참가, 참여 가능한 공정한 지역사회

●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 개성이 존중되어,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지역사회

●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나아가는 인권존중의 지역사회

중점과제 · 정책 · 대응

3 가지 시책을 기둥으로써, 구체적인 제반 사업을 실시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 인권교육 · 개혁의 추진

● 인권옹호 · 보호기능의 충실

● 사회전체로써의 협력의 추진

【인권문제 별개의 중점과제 · 정책 · 대응】

● 여성의 인권

< 과제 >

- 고정적인 성별역할분담의식이 근본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어, 남녀 공동참여사회의 실현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는 행동으로써, 남녀 공동참여사회를 형성하여 나아가며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다.

< 대응 >

- 평성 25(2013)년 3 월에 “DV(가정폭력)방지 기본계획”을 포함한 “타카츠키시 남녀 공동참여계획”을 책정하여, 같은 계획에 기본을 두어, 남녀 공동참여사회의 실현을 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 아동의 인권

< 과제 >

- “가정교육”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부모 등이 폭력을 자행하는 때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나, 육아를 포기하는 등의 태만함과 같은 아동학대는, 어린이의 심신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다음세대에 “학대의 연쇄”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인식함에 따라, 학대의 조기발견과 그에 대한 가정의 지원이 지극히 중요하다.
- 어린이는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며,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대응에 관해서는 가정과 학교, 유치원, 보육원,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 대응 >

- 『타카츠키시 다음세대 육성지원 행동계획(후기계획)』와 『제 3 차 타카츠키시 청소년 육성계획』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어린이 또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최대한 존중하여, 지키기 위한 갖가지 시책의 추진이 노력되고 있다.

●고령자의 인권

< 과제 >

- 고령자에 대한 학대와 간호의 포기, 거부, 재산, 금전적인 면 등으로써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간호의 장기화, 간호사 자신의 고령화에 따른, 간호를 하고 있는 가족 등의 신체적, 정신적인 간호부담이 증대하고 있는 현상도 있다. 또한, 고령이라는 것으로써 일률적인 사회적 약자로 판단되거나, 연령제한 등에 따른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고령자의 상황에 따른 시책, 삶의 가치가 있는 대책 등을 실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고령자의 문제를 인권문제로써 생각하여 나아가는 시점을 양성하여, 고령자들의 인권을 지키며, 그 존엄을 유지하는 각각의 시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 대응 >

- 『타카츠키시 고령자들의 복지계획·간호보험 사업계획』을 책정하여、「고령자 존엄의 유지」를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여, 고령자 학대 방지를 위해 시책을 촉진하는 것 외, 인권의식의 계몽 또는 상담체제의 정비와 관계직원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하여, 고령자 학대방지인지를 향한 계몽을 함께 나아가감과 함께, 성년 후견제도와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 등, 치매고령자의 권리옹호를 위한 대응을 촉진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

< 과제 >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7.4%의 응답자가 차별을 받거나 편견이나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유아의 절반 이상이 학교생활에 관해서 차별이나 편견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회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성인, 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족에 관해 설문조사 결과 비방으로 인한 증상이나 여러 장면에서의 장애가 있는 성인, 유아에 대한 학대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 평성 26(2014)년 2월 19일에 “장애인권리조약”이 우리나라(일본)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어떤 방식을 취해야 이 조약의 취지를 실현 할 수 있을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입장의 차이를 넘어,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응 >

- 『타카츠키시 제 3 차 장애인장기행동계획』을 책정하여、「장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호간을 존중하며, 지지하여 도와주는 거리」「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발휘하여, 자립한 생활을 보내는 거리」「가까운 지역에서 안심하며 살아가는 생활지원이 충실 되는 마을」의 이념을 기본으로、「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공생의 거리 타카츠키시」을 이루어야 할 목표상으로써, 여러 가지의 대응을 촉진하고 있다.

● 동화문제

< 과제 >

- 격차는 개선되었지만, 근년,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게시판 사이트 등에 차별적인 글들을 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화지구에 있어서의 결혼 상태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왔지만, 결혼차별이 없어진 것이 아닌, 호적등본의 부정 습득과 부적절한 신원조사 등이 발생하고 있다.
- 「사이비 동화행위」는, 동화문제해결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동화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해서, 차별의식을 없애, 넓게 인권을 소중하게 하는 교육, 개혁활동을 적극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에서의 일방적인 교육, 개혁을 하는 것만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생각하며, 지역사회와 기업, 행정을 포함한 시민협동의 인권교육, 개혁을 지금보다 한층 더욱 진행해야만 한다. 또한, 호적부정습득의 방지를 위한 본인 통지제도의 주지 또는 시민과의 협동에 따른 지역개혁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해야만 한다.

< 대응 >

- 『개정 인권시책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시민의 인권의식의 고양을 측정하여, 지역주민의 자립과 자립실현을 지원하여, 교류의 촉진을 이루기 위해, 학습기관의 확충 또는 상담체제의 충실 등에 노력하고 있다.

● 외국인 시민의 인권

< 과제 >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파트에 입주 또는 공중목욕탕에 입욕을 거부당하거나, 미용서비스의 제공을 거부당한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근년, 길거리 데모 등에 대해서, 특정국적의 외국인을 배척하는 지지의 언동이 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매스컴 등에 따라서 "Hate Speech"로써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방중상이 발생하고 있다.
- 외국인시민에 대해서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인정, 외국인시민의 생활습관 등을 이해, 존중하는 동시에, 지역의 공생에 함께 힘써나가는 것이 한가지의 방책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일본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구비하는 것과 정보제공, 혹은 통역 등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시민의 구성원을 포함한 의견교환의장소의 설치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널리 시민이 관계되는 다문화공생의 지역 만들기를 촉진하는 거점이 되는 기관 또한 필요 시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문화를 존중하며 공생해 나아가는 의식을 외국인 시민과 일본인이 항상 마음속에 염두 하는 것이다.

< 대응 >

• 타카츠키시에 생활하는 여러 사람들이, 국적이나 민족, 문화의 차이와 가치각색의 가치관을 인정하여,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파트너)로써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서로 배우며, 함께 생활 가능한 지역사회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타카츠키시 다문화 공생시책추진기본지침』을 책정하여, 여러 가지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의 인권 과제

• 인권문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 시대 또는 사회의 변화,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인권의 개념이 널리 퍼져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인권문제가 인식되고 있다.

• 니트 또는 은둔형 외톨이, 노숙자 등이 되어 학교 또는 일터에서도 배제 당하는 젊은이들의 증가 또는 민간 NPG 등의 지원체제를 중단 혹은 횡단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젊은이 한 명 한 명의 니즈(요구)에 맞춘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오늘날에도,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사상(사실과 현상)이나 사회적 자신, 가문, 인종, 민족, 신앙, 신념, 성별, 장애와 같은 것에 따른 부적절한 차별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인권침해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 정보화, 고령화 등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인권에 관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어, 상호간에 공존하여 얻는 평화에 풍부한 상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신의 함양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조건으로써, 이것을 위해서 행해지는 인권교육, 배양이 중요하다.

•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타인의 권리에 배려하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강조한다"와 함께,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여, 정당한 권리를 강조한다"."사물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마음의 준비와 습관을 몸에 익혀, 차별의식과 편견에 사로잡힌 언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의 추진

계획의 실시목표

시책의 도달목표를 설정함에 동시에, 인권 담당과 혹은 시책소관과 에서의 매년도, 시책의 평가(성과)와 과제의 정리와 같은, 진행관리를 취급한 이후의 시책전개에 활용한다.

계획의 추진체제

< 시민·기업 등과의 연계 >

시민들과 행정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전제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행하는 계몽활동 등에 협력, 지원 한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으로써 인권을 존중한 생활이 요구되는 기업과의 연계하여, 인권과제 해소를 향한 대응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

시민의 인권을 옹호, 보호하기 위해, 인권에 관한 기관, 단체 등과의 정보교환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는, 국가, 정부 또는 인근자치제와의 유기적인 연계에 힘쓴다.

< 관청 내의 추진체제 >

- 시책의 실시상황의 점검 또는 집약을 행함과 동시에, 관청 내 조직의 인권 옹호추진본부와 인권 개혁 간사회를 활용하여, 적절한 진행관리를 노력한다.
- 시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의 집행에 관한 인권문제를 이해하여,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권 감각을 높이기 위한 인권연수의 충실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추진의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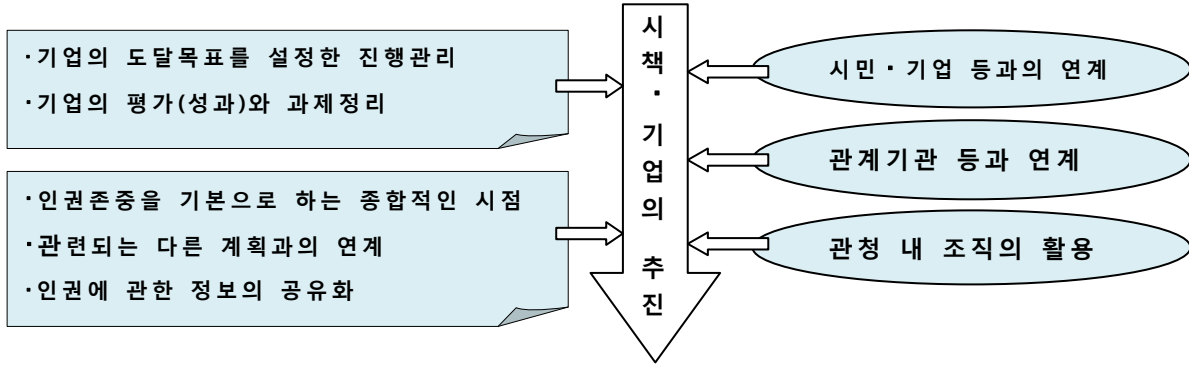
-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화, 복잡화되는 인권과제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인 시점으로 임한다.
- 타카츠키시의 여성, 어린이, 고령자, 장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인권에 관하는 다른 계획 등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유의하여, 효과적, 효율적으로 계획을 추진한다.
- 오늘날과 같은 인권과제에 대응하여 얻도록, 시책의 소관과 간에서의, 인권에 대한 정보의 공유화에 힘쓰고 있다.

타카츠키시 인권 시책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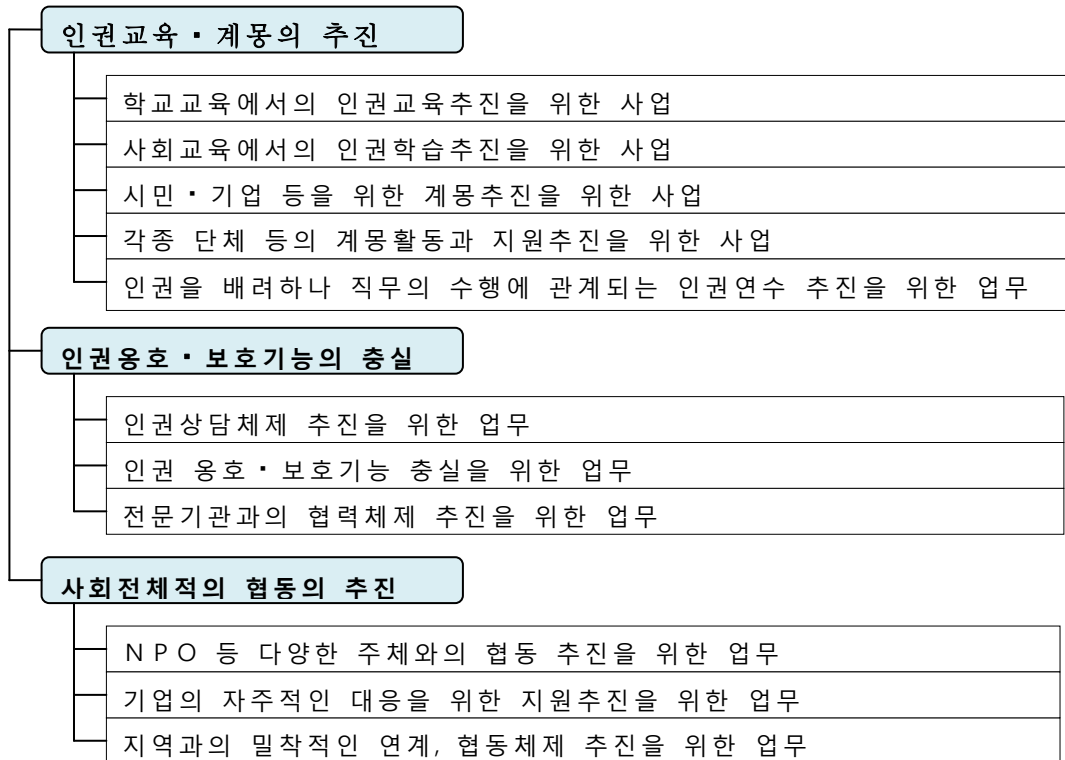
<기본이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 누구든지 본인답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

<목표로 하는 “실현되어야만 하는 지역 사회”>

- 차별과 편견이 없는, 모든 시민들이 상호간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되어, 자기실현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 활기 있는 지역사회
- 시민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써 공평한 참가, 참여 가능한 공정한 지역사회
-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 개성이 존중되어, 함께 생활 가능한 지역사회
- 시민, 기업, 행정 등이 함께 나아가가는 인권존중의 지역사회



< 인권시책의 기동·구제적인 제반 사업 >



< 발행 > 타카츠키시 시민생활부 인권과
 〒569-0067 타카츠키시 모모조노 2번 1호
 TEL 072-674-7575 FAX 072-674-7577